

# 진입로 막아 2개월째 고립된 생활

### 주민들 하천부지로 진입로 개설 요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입주하였으나 현황도로로 일었던 진입로가 사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땅주인이 진입로 입구를 봉쇄함으로써 밝혀져 10여가구 주민 30여명이 2개월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주민들은 차량진입이 어려워 200m 진입로를 손수레 등을 이용해 생필품을 운반하는 등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사료를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게 여간 고역이 아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10여가구 주민들은 포천시와 지난 94년 군내면 하성북리 산 91번지 4천950㎡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당시 현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가당시에는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현재는 사유지로 인정하는

포천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곳 진입로 입구 소유자인 신 모씨는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 도로로 인정할 경우 용적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난 4월1일 부득이하게 진입로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진입로를 이용하는 박정삼씨 등 주민들은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허가당시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형질변경허가 당시 신청인이 인근토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서 등을 징구하여 적법한 도로를 확보토록 조치한 후 허가처리했어야하며 이로 인해 향후 분쟁 소지를 제거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사유(의사)규정)에 의거 시효 2년이 훨씬 경과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사는 10여가구 30여명의 주민들은 도심속에서 고립되어 살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 포천외국인노동자 친선체육대회

포천나눔의집(신부 오상운)은 지난 23일 일요일 청성공원에서 포천외국인노동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친선체육대회에는 이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에서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배구와 족구 등 체육행사를 통해 상호간의 애로사항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장에서 박은국 포천시장은 "포천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하라"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6월은 49주년이 되는 현충일과 6.25 전쟁이 발발한지 54주년이 되는 달이다.

동족상잔의 피로 물들었던 조국의 산하에 포성이 멎은지 5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뜻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원혼은 여전히 동강난 조국의 아픔을 애달파 하는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국전쟁후 반세기가 지난 세월이 흘러 이제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남북간에는 분단되어 서로 다른 체제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간 화해무드를 이끌어 공동 발전해 가기위해 정치, 경제, 사회, 각부문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경제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경제 불확실성은 세계적인 새로운 경제환경과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온국민이 상상과 화합의 틀속에서 이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하며 경제회생을 위해 온갖 총력을 기울일 시점에 와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호국정신을 선양할 계획이며, 호국·보훈의달 행사를 보다 알차고 보람있게 국민과 함께 하기위해 6월 한달을 주제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먼저 현충일이 들어있는 1일부터 10일까지는 추모의 기간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의 기간으로, 21일부터 30일까지는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정하여 그에 걸맞는 각종행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 후손들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각종 지원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국민모두가 보훈의 참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모두는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이땅을 지켜왔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충지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나아가길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속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수 있는 것은 지난날 그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신명을 바친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금년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의정부보훈지청 복지주무 박 춘 석

## 카메라 고발

### 서로 다른 영문 이정표



▲ 포천여성회관을 표현하는 영문표기가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 사건 II 사고

### 빗길 교통사고 운전자 2명 사망

지난 28일 오전 11시 55분경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47번 국도 편도 2차선 불수리교에서 장모(44.운전자)씨가 몰던 BMW 승용차와 최모(47.스님)씨가 몰던 그랜저 렌터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장씨와 최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삼성물산 전 대표이사 부사장 유무성(63)씨와 같은 회사 전 건설부문 대표이사 김현출(60)씨가 중상을 입어 서울 삼성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스키드마크가 남아있지 않아 명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BMW에 타고 있던 유씨 등이 사고충격으로 사고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정신을 수습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우즈베키스탄인 검거

포천경찰서는 차량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 우즈베키스탄인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04. 5. 23. 03:10경 포천시 일동면소재 00상가 앞 노상에 시동을 켜놓은 채 세워져 있던 경기007A0000호 차량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43%,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범 검거

포천경찰서는 최모씨(36세, 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포천시 영북면 윤천리 소재 모 다방에서 전일 피해를 폭행한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된 것에 양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군용대검, 부탄가스 5개, 구리스 강통에 8리터가량의 시너를 들고 "너죽고 나죽자" 라며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주위 사람들이 달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술 취해 길에서 잠자던 사람 상대 2400만원 흥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야간에 전철역 주변 길에서 잠자는 취객들의 지갑을 훔친 김모씨(32) 등 2명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4일 새벽 0시55분경 의정부시 북부역 앞 길에서 술 취해 잠자던 박모씨(38)의 바지에서 현금 등 504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모두 2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 한국경찰, 한시적으로 미 2사단 영내 순찰

의정부시에 주둔한 주한미군 2사단과

의정부경찰서가 지난 13일 시설물 경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인 영내 출입에 합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2인 1조로 구성된 영내경비들이 사단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 경찰은 영내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30여분을 출동할 수 있는 등 경비업무가 원활해졌다. 미 2사단 경비는 지난 2002년 11월말 대학생 53명이 인근 경민대학교를 통해 사단 외곽 철조망을 뚫고 영내로 진입해 농성을 벌인바 따라 최근까지 이뤄지고 있다.

### 승용차 1t 포터 화물차 충돌 2명 사망

지난 28일 밤 11시 50분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편도1차선 도로에서 양주시 방면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가던 경기33모6500호(운전자,신원불상) 레간자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경기7조5215호(운전자,유모.56) 1t포터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간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김모씨(41.여)가 의정부 신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숨졌다. 또 포터 차량 운전자 유씨가 숨지고 동승자 이모씨(44)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레간자 승용차가 과속으로 달리던 중 급커브를 틀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또 현장에서 달아난 레간자 승용차 운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김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효순-미선양' 사건 최초 보도한 이용남씨 음독 종태

과주일대 미군문제를 주로 사진으로 통해 고발해오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용남(50)씨가 지난 24일 오후 음독 자살을 시도해 종태다.

음독자후 발견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이씨는 "농민이 땅을 뺏기고, 효순이 미선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얼굴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나"며 치료를 거부, 이런 상태를 이삼일 지속할 경우 생명이 위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섬유공장서 8만원 때문에 살인 용의자 2명 체포

양주경찰서는 23일 섬유공장서 폐비닐을 훔치다 직원에게 발각되자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한모(33), 오모씨(39) 등 2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 등이 훔친 폐비닐 400kg은 시가 8만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임시변호관에 '완주'라고 쓰인 트럭을 B섬유에서 8km 가량 떨어진 양주시 광적면 폐비닐 수출회사 H무역에서 발견, 의정부와 양주의 집으로 도주한 한씨 등을 검거했다. 이와함께 H무역에서 이들이 훔친 폐비닐과 트럭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한씨 등이 차에 치어 쓰러진 이씨를 역주행해 뒷바퀴로 머리를 재차 충격했는지 여부도 추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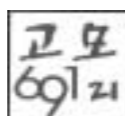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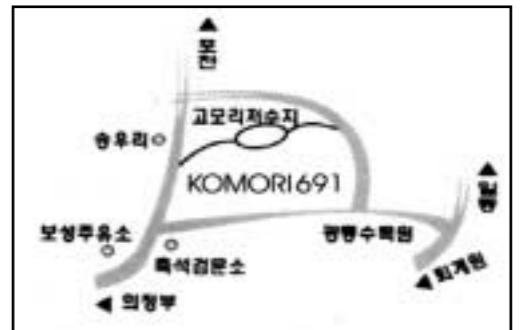
# 특급조리사들의 격조높은 서비스 691 '한정식 · 경양식 - 볼 거리와 먹거리 문화를 동시에 만끽 할 수 있는 공간 -



- ☞ 특급 메뉴
- 한정식 A : 30,000
- 한정식 B : 35,000
- 한정식 C : 45,000
- 한정식 특 : 55,000

☞ 691 한정식은....  
전통궁중요리를 고수하여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정갈함과 깔끔함이 배어있어 연인, 가족외식, 직원회식에 최적입니다.

☞ 약도



E-mail : komori691@komori691.com 홈페이지 : www.komori691.com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691 예약문의 : 031) 5412 - 691 대표 : 이희자